

#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결혼

시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의 결혼은 반석 위에 있는가? (제니퍼 설레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칭찬받은 정치 시스템과 경제 질서 사이의 관계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와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책들이 경종을 울린다.

제니퍼 설레이 Jennifer Szalai는 뉴욕 타임스의 논픽션 평론가이다. 설레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토론토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평화 및 분쟁을 공부했다. 그녀는 또한 런던 경제학 스쿨에서에서 국제 관계 석사 학위를 받았다.

\* 출처: 뉴욕 타임스 / 2023년 2월 17일

<https://www.nytimes.com/2023/02/15/books/review/books-democracy-capitalism.htm>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80년 공영 TV를 통해 방영한 다큐멘터리 시리즈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는 요즘에도 초현실적인 시청이 가능하다. 그해 말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자본주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들이 자유 시장과 최소한의 정부에 대한 비전으로 대중을 설득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느꼈던 시기였다. 오늘날의 억만장자 기부자들은 애써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립서비스를 하지 않고도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들에게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지만, "선택할 자유"의 기업 자금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데 착수했다.

오늘날의 억만장자 기부자들

<https://click.pstmrk.it/2sm/www.nytimes.com%2F2021%2F04%2F20%2Fus%2Fpolitics%2Fmegadonors-political-spending.html/3-RqbTgN/ZSwP/rTOmF7nNrO/MzY1MzI5MA>

애써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립서비스를 하지 않고도

<https://click.pstmrk.it/2sm/www.nytimes.com%2F2022%2F02%2F14%2Ftechnology%2FRepublican-trump-peter-thiel.html/4PRqbTgN/ZSwP/KTZMLTp5TL/MzY1MzI5MA>

그들은 엄청난 시청자를 확보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시청한 1,500만 명의 시청자들은 시끄럽고 불비는 차이나타운 공장의 의사에 아무렇지 않게 기대어 앉아 재봉틀 사이로 천을 밀어 넣는 여성들에게 둘러싸인 작은 체구의 프리드먼이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프리드먼은 방 안에 있는 아시아 여성들을 향해 손짓하며 "그들은 우리 어머니와 같다"고 말했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헝가리에서 14살에 이민 온 그 역시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프리드먼은 저임금 의류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카메라는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 쟁반으로 넘어갔다.

아시아 여성들을 향해 손짓하며

[https://click.pstmrk.it/2sm/www.freetochoosenetwork.org%2Fprograms%2Ffree\\_to\\_choose%2Findex\\_80.php%3Fid%3Dthe\\_power\\_of\\_the](https://click.pstmrk.it/2sm/www.freetochoosenetwork.org%2Fprograms%2Ffree_to_choose%2Findex_80.php%3Fid%3Dthe_power_of_the)

프리드먼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를 신용하지는 않았다. 그는 칠레의 군사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게 잔인한 건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제적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1967년 민권 운동이 한창일 때 프리드먼은 미국 흑인들이 이룬 모든 진보는 "비현실적이고 사치스러운 기대"만 부추기는 "입법 조치"가 아니라 "시장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이 믿었던 것은 자본주의, 즉 그가 "경제적 자유"라고 불렀던 것이었다. 정치적 자유는 올 수 있지만 자본주의는 그것 없이도 잘 작동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잔인한 건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제적 조언을 제공

<https://click.pstmrk.it/2sm/www.nytimes.com%2F1975%2F09%2F22%2Farchives%2Ftwo-years-of-pinochet.html/4VRqbTgN/ZSwP/qLbHxjdDw/MzY1MzI5MA>

마틴 울프는 그의 새 책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The Crisis of Democratic Capitalism"에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민주적 정치 없이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고, 민주주의는 시장 경제 없이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한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에 자원을 공급하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 정당성을 공급한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수석 경제 평론가인 울프는 민주적 자본주의의 개화 후 "그 섬세한 꽃"이 시들기 시작했다고 걱정한다. 그의 분노의 대부분은 "자산소득자 rentier 자본주의"와 "조작된" 경제를 조장한 불안정한 금융 시스템을 향한 것이다.

민주적 자본주의의 위기

<https://click.pstmrk.it/2sm/www.penguinrandomhouse.com%2Fbooks%2F554951%2Fthe-crisis-of-democratic-capitalism-by-martin-wolf%2F/4-RqbTgN/ZSwP/9a2W8dd67O/MzY1MzI5MA>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울프 혼자만이 아니다. 그와 다른 관찰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의 당황스러운 상황에 걸맞게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울프처럼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는 항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울프의 경우, 고뇌에 찬 어조는 그 자신의 환멸의 규모를 반영한다. 1946년 전후 영국에서 태어난 그는 서문에서 "내가 자랄 때 세상은 견고해 보였다"고 회상한다. 그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변성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묘사한다.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를 읽으며 자본주의의 잔인성과 잡식성을 "홀륭하게" 묘사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내면서도 그들의 해법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자본주의는 자유에 맡겨두면 어디든 확장할 수 있고, 국경과 지역 전통을 뛰어넘어 놀랍도록 역동적이거나 완전히 파멸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드물지 않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울프가 보존하고자 하는 "민주적 자본주의"는 울프 자신이 보기에도 단명했다. 민주주의 - 또는 울프가 자신이 의미하는 종류의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보편적 참정권을 가진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하루살이"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적 자본주의는 2008년 금융 위기와 함께 종말을 고했다. 로버트 라이시 전 노동부 장관은 적어도 미국에서 민주적 자본주의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시작되어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기업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으면서 끝났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1965년의 투표권법과 함께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라이시와 울프는 민주적 자본주의가 부활할 수 있고 부활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함께 깊은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  
또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https://click.pstmrk.it/2sm/www.theguardian.com%2Fcommentisfree%2F2023%2Ffeb%2F06%2Fjoe-biden-democratic-capitalism-changed-economic-paradigm-reagan-free-market/5PRqbTgN/ZSwP/7DTshMErV8/MzY1MzI5MA>

1965년의 투표권법

<https://click.pstmrk.it/2sm/www.nytimes.com%2F2015%2F07%2F29%2Fmagazine%2Fvoting-rights-act-dream-undone.html/5fRqbTgN/ZSwP/7E5aJJasbt/MzY1MzI5MA>

--

독일의 좌파 사회학자 볼프강 슈트렉 Wolfgang Streeck은 "민주적 자본주의"를 전후 수십 년간의 풍요와 동일시하는 경향은 "당시 유일무이하게 강력한 노동자 계급과 똑같이 유일무이하게 약화된 자본가 계급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확연히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How Will Capitalism End?" (2016)에서 스트릭은 타협이 아니라 전후 호황 이후 인플레이션, 실업, 시장 붕괴와 같은 일련의 위기가 "민주적 자본주의의 정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울프가 "섬세한 꽃"을 그리워하는 반면, 스트릭은 경멸적으로 "삿건 결혼"이라고 쓴다.

--  
자본주의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https://click.pstmrk.it/2sm/www.versobooks.com%2Fbooks%2F2519-how-will-capitalism-end/5vRqbTgN/ZSwP/wZGb6mWOst/MzY1MzI5MA>

삿건 결혼 - (신부의 임신 등으로 인해) 급히 치뤄야 하는 결혼식

--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슈트렉의 말은 사보나롤라의 변두리 인물의 말처럼 들렸지만, 2014년에는 민주적 자본주의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확신하며 "시간을 사다 Buying Time"를 출간했다. 한때 터무니없어 보였던 아이디어가 선견지명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사학자 게리 거슬 Gary Gerstle은 그의 흥미롭고 예리한 저서 "신자유주의 질서의 흥망성쇠 The Rise and Fall of the Neoliberal Order" (2022)에서 이 변형을 탐구한다. 거슬에 따르면, 1960년대 말과 70년대에 뉴딜 질서가 흔들리기 전까지 미국인 대다수는 자본주의는 강력한 국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질서에서는 미국인 대다수가 국가가 자유 시장에 의해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각 질서는 각자의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들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뉴딜 정책과 그것의 후속자인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했지만, 이 책들에서 알 수 있듯이, 주류의 가정은 물론 주류의 가정이라는 개념조차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나오미 오레스케스 Naomi Oreskes와 에릭 M. 콘웨이 Erik M. Conway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울지 모르지만 자본주의는 시민 종교의 지위를 획득했다. "거대한 신화: 미국 기업은 어떻게 우리에게 정부를 혐오하고 자유 시장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는가 The Big Myth: How American Business Taught Us to Loathe Government and Love the Free Market"에서 저자들은 산업 단체들과 부유한 기부자들이 "시장 근본주의", 즉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로운 시장에 의한 성장과 혁신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공동의 캠페인을 벌여왔다고 주장한다.

--  
거대한 신화: 미국 기업은 어떻게 우리에게 정부를 혐오하고 자유 시장을 사랑하도록 가르쳤는가

<https://click.pstmrk.it/2sm/www.bloomsbury.com%2Fus%2Fbig-myth-9781635573572%2F/6fRqbTgN/ZSwP/RPZ8oLdEUi/MzY1MzI5MA>

--

오레스케스와 콘웨이는 "의심의 상인들 Merchants of Doubt" (2010)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정립된 과학을 "불안정한 것"으로 묘사해서 담배 산업을 보호하고 기후변화 부정을 조장하고자 했던,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노력을 자세히 설명한 책이다. 그들은 그들의 새 책을 일종의 속편이라고 - "상인"의 인물들을 움직인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려는 시도라고 기술한다. 정부 규제에 대한 그 인물들의 공포는 환경 보호와 공산주의 폭정을 동일시했을 정도로 극단적이었다.

그러나 이 새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퍼뜨리고 있는 것은 의심의 씨앗이 아니라 확실성이다: 자유방임 경제학의 불확실한 "과학"이 논박될 수 없는 사실로 포장된다. 오레스케스와 콘웨이는 과학자들이인데, 그들은 전미제조업협회나 경제교육재단과 같은 단체들이 "탐욕은 선하다"는 말을 퍼뜨리는 데 투입한 자원을 밝혀내는 인상적인 작업을 수행했다.

"거대한 신화"의 주요 함의는 "시장 근본주의"가 소수를 풍요롭게 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며, 미국인들은 이를 믿기 위해 선전에 속아 넘어가야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슬의 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사상은 공교롭게도 미국인들이 개성

과 자유를 강조하며 자신들에 관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과 맞물려 있기도 했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입증되었다.

물론 민주주의에서 그런 대중적 지지는 매우 중요하지만, 역사학자 퀸 슬로보디안 Quinn Slobodian은 "글로벌리스트들 Globalists" (2018)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이 자본주의적 활동들을 민주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장을 자유화할 방도들뿐만 아니라 시장을 국제기구들로 "감쌀" 방도들도 찾아냈다고 주장한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탈식민지화에 대해 우려하면서 무역 규칙과 재산법을 가진 "합리적인 서방"과 "주권에 대한 '감정적인' 헌신을 가진" 탈식민지 남반구를 대립시키는 잘난체 하는 "인종화된 언어"를 채택했다고 지적한다.

--  
글로벌리스트들

<https://click.pstmrk.it/2sm/www.hup.harvard.edu/%2Fcatalog.php%3Fisbn%3D9780674979529/6-RqbTgN/ZSwP/dLL0f-hfRV/MzY1MzI5MA>

--  
슬로보디안의 불편하게 하지만 훌륭한 신간 "해체된 자본주의 Crack-Up Capitalism"(4월 출간 예정)는 다른 신자유주의적인 국민 국가 회피들 - 조세 피난처, 경제 특구, 폐쇄된 공동체 등 "규제의 통상적 형태들로부터 자유로운" 엔클레이브들 enclaves - 을 탐구한다. 새로운 세대의 호사스러운 억만장자들은 항해나 우주선을 통한 탈출의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면서 탈퇴의 전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민주주의는 해답이 아니다," 단지 "현재의 업계 표준"일 뿐이라고 선언한 한 항해 애호가 말을 인용한다. 그 사람은 밀턴 프리드먼의 손자인 패트리 프리드먼 Patri Friedman이다.

--  
해체된 자본주의

<https://click.pstmrk.it/2sm/us.macmillan.com/%2Fbooks/%2F9781250753892/%2Fcrack-up-capitalism/7PRqbTgN/ZSwP/U8eDErn1jE/MzY1MzI5MA>

항해

<https://click.pstmrk.it/2sm/www.nytimes.com/%2F2017/%2F11/%2F13/%2Fbusiness/%2Fdealbook/%2Fseasteading-floating-cities.html/7fRqbTgN/ZSwP/FhQDz02Vpn/MzY1MzI5MA>

우주선

<https://click.pstmrk.it/2sm/www.nytimes.com/%2F2018/%2F04/%2F24/%2Fbooks/%2Fpreview/%2Fspace-barons-christian-davenport-rocket-billionaires-tim-fernholz.html/7vRqbTgN/ZSwP/MBTRO4gpHM/MzY1MzI5MA>

패트리 프리드먼

<https://click.pstmrk.it/2sm/www.seasteading.org/%2Fstaff/%2Fpatri-friedman/%2F/7-RqbTgN/ZSwP/HO8YHFRU81/MzY1MzI5MA>

--  
하지만 슬로보디안은 희귀한 계급이 민주주의를 넘어선 영역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만큼, 가장 환상적인 자본주의 프로젝트조차도 작동하려면 대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기술 억만장자들은 안전한 근무 조건과 생활 임금을 요구하는 성가신 평민들이 욕증이 가득한 스테이크 한 접시는커녕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는 지칠 줄 모르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필수 노동자는 여전히 인간이다.

슬로보디안은 "유급 서비스 계급은 몽상가들이 가장 쉽게 잊을 수 있는 계급이고 그들이 없이 살기 가장 힘든 계급이다"라고 말한다. "구름이 떠 있는 것은 하층계급이 구름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들이 팔을 내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다."